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1 교원 마음돌봄 직무연수' 성료

### 자기돌봄 위한 집단상담·도우아트 두 과정으로 구성 코로나 위기 속 교원들에 재충전 기회 주기 위해 기획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1·22·28일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2021 교원 마음돌봄 직무연수'를 성료했다.

29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위기 속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

직무연수는 ▲자기돌봄을 위한 집단상담 ▲자기돌봄을 위한 도우아트 등 두 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자기돌봄을 위한 집단상담'은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실시했다.

강사로 마음숲심리상담센터 박희석 소장이 초청됐다. 박 소장은 교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강의를 통해 집단의 지지와 격려가 자아 존중감 향상과 관계 회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기돌봄을 위한 도우아트'는 지난 28일 진행됐다. 에스향기 김은옥 대표가 함께 했다. 김 대표는 교원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중점을 뒀다.

수경 식물을 활용한 도우아트 체험을 통해 생명 존중의식 및 자연과의 소통을 중시했

다. 이를 통해 각종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으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됐다.

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나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심리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듯 교원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You can do it! 미디어 원격수업'

###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진)은 17일·24일, 2일간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는 ◇ 이제는 미디어리터러시 시대, ◇ 쌍방향 소통 손쉽게 해결해zoom!, ◇ 미리캔버스로 나도 디자이너, ◇ 한 번에 끝내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 편집 및 제작 발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부모와 소통 증진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연수와 실습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쌍방향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법, 현장에서 쓰던 기능들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알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 원장은 "이번 직무연수가 휴일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열정적인 참여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의 다양한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길 바라고,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김정환기자

## 장성중앙초등학교, '실력 쑥쑥 비타민 교실'

### 기초학력 및 문해력·수해력 향상 위해 운영



장성중앙초등학교(교장 최영성)는 기초학력 및 문해력·수해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타민교실은 기초학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년의 학습 내용을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 장성중앙초 교육복지실에서

1~2학년 19명, 3~6학년 14명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국어와 수학을 학습하고 있다.

비타민교실에 참여한 3학년 학생 이○○은 "공부 시간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타민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2학년 학생 김○○은 "낯말 카드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알아보는 활동이 재미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최영성 장성중앙초 교장은 "지난 해 코로나 19의 영향이 학생들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더욱 더 기초학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타민 교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성중앙초등학교는 "비타민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기동채본부

## 순천대 인문학술원 '한국군의 군사교리' 초청강연회 개최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인문학술원은 30일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과 순천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안재봉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이 '한국군의 군사교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안재봉 부원장은 F-4D 후방석 조종사 출신으로 공군 국방개혁 T/F장, 공군 작전사

령부근무지원단장, 공군 연구분석평가단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2013년 공군 준장으로 전역한 이후 충남대학원에서 군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초청강연회 개최에 앞서 순천대 인문학술원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는 연구 협력, 연구자 교류, 학술교육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을 주최하는 순천대 인문학술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철학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또 2017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된 이래 '여순사건의 기억과 지역사회',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 '전쟁과 동원문화', '전쟁과 문화기획: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등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총서 3권, 자료총서 3권, 기획총서 1권, 학술지 4권을 발간하는 등 전쟁 및 군사와 관련된 학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영암교육청, 맘-품지원단 발대식 및 협의회

### 미용실·치료센터·식당·체험활동 등 실생활 필수적 시설 제공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8일 영암 Wee센터에서 영암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엄마의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멘토 10명, 멘티 10명(총 20명)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맘-품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맘-품지원단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족의 몫을 나눠주고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새로운 멘토단을 구성하고, 위촉장 전달식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올해 멘토단을 신청한 학부모는 영암Wee센터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교육청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였다.

또한 맘-품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의 집'도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미용실, 치료센터, 식당, 체험활동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등록된 피아노 학원장도 학교에서 온 후원의 집 안내장을 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서 후원자로 등록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